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도사는 한림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② 납매는 교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주를 눌러 죽였다.
- ③ 유 한림은 천자를 미혹하는 승상을 비판하는 글을 지었다.
- ④ 춘방은 거짓 증언을 하는 설매를 꾸짖으며 죽음을 맞이했다.
- ⑤ 두 부인은 사 부인이 집에 없는 것을 모르고 한림에게 편지를 썼다.

선지 1번, '도사가 웃으며 말한다. / '이는 오직 상공의 애정과 관심을 요구함이고, 살인모해(殺人謀害)하는 저주가 아니오니에서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 2번, '교녀가, / '이 계교는 차마 듣지 못하리니, 다른 좋은 모계를 획책하라.'에서 교녀는 허락하지 않았으며, 동청이 대답하지 않고 납매더러 이르기를, / '남자 사람됨이 잔약하여 이 계교를 행치 아니하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니, 네 틈을 타 행하라.' / 이후 납매 하수코자 하되 틈을 얻지 못하더니, 하루는 장주가 난간에서 자더라. 사방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은 없고, 사 부인의 몸종 춘방이 설매와 같이 풀싸움하며 난간 아래로 가거늘 멀리 간 후, 즉시 올라가 장주를 눌러 죽이고,에서 교녀가 아닌 동청의 명령으로 납매가 장주를 죽인 것을 알 수 있다.

선지 3번, '승상 엄승이 도사의 잡술로 천자를 미혹하게 하는지라, 한림이 상소하여 간했다는 사실을 통해 한림이 승상 엄승이 천자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천자가 도사와 단약(丹藥)을 믿으시고, 엄 승상이 그 일을 힘쓰거늘, 이제 유 한림이 천자를 비방하고, 엄 승상을 폄하여 글을 지었으니를 통해 실제 유 한림은 승상을 비판하는 글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지 4번, '무죄한 부인을 팔아 살기를 도모하니 견마라도 그 주인을 한 맘으로 섬기거늘 네 간사한 무리와 어울려 재물을 받고 주인을 해코자 하느냐? 내 장(杖)을 맞아 죽을지언정 어찌 무죄한 부인을 해하리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부인의 원통한 누명을 씻어 주소서.' / 하고 안색을 불변하고, 마침내 복초(服招)치 아니하고 장을 맞아 죽더라.를 통해 춘방은 거짓 증언을 하는 설매를 꾸짖으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 5번, '부인이 성도에서 서간을 부쳐 왔더라. 한림이 개봉한즉, 사씨의 줄화(黜禍)당함을 모르고 쓴 것이라,를 통해 두 부인은 사 부인이 집에 없는 것을 모르고 한림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보 기>

조선 중기에 이르러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처첩 간의 갈등, 장자 상속으로 인한 적서차별의 문제 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부장의 현명함이 중요했는데, 가부장이 어리석으면 가문의 혼란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또한 가부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장이 죽거나 부재하게 되면 가문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사씨남정기는 처첩 갈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지위 확보를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조선 사회 가부장제로 인한 폐해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설매가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 부인을 모함한 것은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겠군.
- ② 동청이 엄 승상에게 유 한림의 글을 전하려는 계획은 가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가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동청이 유 한림에게 독약을 먹이자고 교녀에게 제안하는 것은 정쟁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문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동청이 납매에게 교녀의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유 한림이 무고한 사 부인을 의심하여 나가게 한 것은 가장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문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선지 1번, '설매는 처음은 춘방의 말과 같이 하더니, 나중은 소리를 크게 하여 하는 말이, "대형벌을 당하여 죽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직고치 아니하리까. 부인이 소비와 춘방에게 분부하사 '장주 공자를 죽이면 큰 상을 내리리라.'라는 말을 하면서 사부인을 모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는 교녀와 사 부인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선지 2번, "엄 승상이 그 일을 힘쓰거늘, 이제 유 한림이 천자를 비방하고, 엄 승상을 폄하여 글을 지었으니, 이 글을 엄 승상께 드리면 승상이 노하여 천자에게 아뢰어 필면 귀양을 면치 못하리니 어찌 묘하고 쾌하지 아니하리오." / 교녀가 좋아서, / '남의 손을 빌어 저를 없애려면 어찌 쾌한 일이 아니리오.'를 통해 동청이 유 한림을 축출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 3번, 한림이 두렵고 죄스러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하매 자기가 궤에 빠져 조강(糟糠)의 의(義)를 저버린 듯한지라, 심사가 편치 못하여 교녀와 정이 소원해지더라. 교녀가 크게 두려워 동청더러 사기(事機)를 이른다. / 동청이, / '독약을 음식에 타 한림을 먹이라.'에서 유 한림이 총명을 되찾아서 교녀와의 사이가 소원해졌으며, 이에 대해 교녀는 불안감을 느끼며 방법을 모색한 결과, 동청이 독약을 먹이자고 교녀에게 제안한 것이다. 즉, 근본적인 원인은 정쟁이 아니라 한림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즉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지 4번, 동청이 대답하지 않고 납매더러 이르기를, / '남자 사람이 잔약하여 이 계교를 행치 아니하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니, 네 틈을 타 행하라.' / 이후 납매 하수코자 하되 틈을 얻지 못하더니, 하루는 장주가 난간에서 자더라. 사방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은 없고, 사 부인의 몸종 준방이 설매와 같이 풀싸움하며 난간 아래로 가거늘 멀리 간 후, 즉시 올라가 장주를 눌러 죽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에서는 이를 '자신의 지위 확보를 위한 인간의 잔인성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고 설명한다.

선지 5번, 한림은 스스로 '정신이 들어 옛날 총명이 돌아오더라. 전일을 상상하여 보매 뇌우치는 마음이 점점 더한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하면서 한림이 두렵고 죄스러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하며 자기가 께에 빠져 조강(糟糠)의 의(義)를 저버린 듯한지라, 심사가 편치 못하게 된다. 결국 이후 동청과 교내가 계교를 꾸미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기에서는 '가부장이 어리석으면 가문의 혼란은 한층 더 가중된다고 설명한다.

21.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와 ㉡는 모두 사 부인을 살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② ㉠는 설매가, ㉡는 사 부인이 과거에 행한 부정적 행위의 증거물이다.
- ③ ㉠는 설매를 설득하기 위한, ㉡는 한림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④ ㉠는 한림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는 한림을 모해하려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⑤ ㉠는 설매가 납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는 한림이 과거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선지	㉠옥지환	㉡목인(木人)
①	사 부인을 살해하려는 수단	사 부인을 살해하려는 수단
②	설매가 과거에 행한 부정적 행위의 증거물	사 부인이 과거에 행한 부정적 행위의 증거물
③	설매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	한림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
④	한림의 관심을 유도	한림을 모해하려는 목적
⑤	설매가 납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	한림이 과거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계기로 활용